

## 평창동계패럴림픽 외면한 MBC

### 시청자 지적에 귀 닫고 있다가 대통령 한 마디에 부랴부랴 편성?

지난 9일 평창동계패럴림픽이 개막했다. MBC는 평창동계올림픽에 개막식 전부터 적극적인 편성과 보도를 쏟아내는데 비해, MBC는 패럴림픽에 무관심했다. 시청자들은 MBC에서 패럴림픽 경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없었다. 9일 개막식을 제외하고는 12일까지 심야시간에 하이라이트만 편성했기 때문이다. 다른 방송사와 비교하면 MBC의 패럴림픽 편성이 얼마나 빈약했는지 더 잘 알 수 있다. 3월 10일(토) SBS는 오전에, KBS는 오후에 패럴림픽을 생중계했지만 같은 시각 MBC는 예능 프로그램을 재방송했다. 11일(일)의 경우 지상파방송 3사 모두 낮시간대 패럴림픽을 중계하지 않았지만 12일(월) SBS는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KBS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생중계했다. 그러나 이날 MBC는 패럴림픽 경기를 편성하지 않았다.

한국의 지상파 방송사들, 특히 MBC가 패럴림픽을 홀대한다는 사실은 개막 전부터 문제가 됐다. NHK(일본)는 62시간, NBC(미국)는 94시간, 채널4(영국)는 100시간을 편성한 것과 비교해 MBC는 18시간만을 편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장애인단체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편성 확대를 요구했지만 MBC는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패럴림픽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중계방송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보도된 다음날인 13일부터 MBC는 낮시간대 패럴림픽 경기를 생중계했다. 그리고 편성을 18시간에서 35시간으로 늘리고 폐회식도 녹화중계 대신 생중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청자 요구를 외면하다 대통령이 지적하자 부랴부랴 편성한 모양새가 되었다.

### 장애인 무관심, 패럴림픽 계기로 드러나

MBC는 <방송강령>과 <프로그램 일반준칙>을 통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권익 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왔다. 이번 패럴림픽 중계의 경우, 장애인들이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모습을 통해 이들 역시 비장애인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MBC는 외면했다.

패럴림픽 편성 논란을 계기로 MBC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 그간 얼마나 소홀했는지도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 장애와 가난으로 고통 받는 이들을 조명하는 <나누면 행복>의 경우, 주 1회 방송되지만 목요일 새벽 1시가 넘어서 시청할 수 있다. 특히나 후원 모금을 진행하는 방송임에도 심야시간에 배치된 점은 시청자들이 참여할 기회를 처음부터 제한하는 편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평일과 주말 낮 시간대 유사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KBS와 비교할 때 매우 소극적인 편성이다.

평창동계패럴림픽 폐막까지 이를 남았다. MBC는 뒤늦게 경기 중계 편성을 늘렸고, 당초 녹화중계하기로 했던 폐회식도 생중계하기로 급선회했다. 그렇다고 MBC가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 문제에 소홀했던 책임을 면할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조합 역시 이번 일을 계기로 소수자 보호와 다양성 구현이라는 공영방송 편성의 원칙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3월 16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민주방송실천위원회